

“광주 군 공항 이전·미래 산업 육성 ‘대전환’ 원년”

병오년 새해설계



김산 무안군수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들을 군민과 함께 풀어내며 10만 도농복합 자립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전 3대 조건 관철...미래 100년 초석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지정 최선

‘군민 기본소득 연금’ 지원 기반 마련

2028년 신청사 개청·도시재생 박차

김산 무안군수는 6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무안을 더 크게, 내 삶을 더 높게’라는 기치 아래 미래의 토대를 다져왔다”며 “올해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확고히 하고, 무안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속 협의’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꼽았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무안군은 대통령실 주도의 협의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정부·광주시 1조원 규모 주민 지원사업 추진 ▲확기적인 국가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요구 조건이 관철됨에 따라, 향후 후속 협의에서 공정한 절차와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내 무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제 지형을 바꿀 미래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며, 이미 수요 조사에서 186개 기업으로부터 1542%의 입주 의향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2천300억원 규모의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무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이 주목된다.

무안군은 40MW 이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군민 기본소득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우선 마을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을 통해 공동체 소득도 창출한다.

농업 분야는 AI(인공지능)를 입혀 첨단화한다.

총사업비 1천150억원이 투입되는 ‘AI 첨단농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스마트농업 실증센터와 AI 기반 데이터센터를 구축, 무안을 국가 AI농산업의 핵심 기지로 키운다.

관광 및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도리포 리조트 단지와 연계해 서남해안 대

표 해양 휴양지를 만든다.

남악·오룡지구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젊은이들이 모이는 명품 도시로 육성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과 상권 회복에도 힘쓴다.

최근 당선작 ‘무안품경’이 선정되며 군민의 숙원인 신청사 건립도 본격화에 올라,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27년 착공, 2028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밖에 출생기본수당 지급,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등 포용적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2026년은 무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행정의 편의보다 군민의 편익과 미래 가치를 앞세워, 군민과 함께 대전환의 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높인다

18억7천만원 투입 소상공인 지원

해남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등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현대화도

해남군은 2026년 첫 군정과제로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만들기 본격 시동을 건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AI·에너지 등 신산업의 육성과 함께 군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책을 조기에 가동해 지역경제에 빠르게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발행 7년만에 누적판매액 8천200억원을 돌파한 해남사랑상품권은 2026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1월에는 지류 12%, 카드 15% 할인판매를 실시하며 연중 카드·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를 확대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17개사업, 18억6천900만원의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3종 지원을 비롯해 ▲소규모 점포경영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 ▲신규창업 입차료지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막개비 가맹점 배달수수료 지원 ▲전기요금지원 ▲푸스해 보험료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전환지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등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골목 경제의 온기가 흐를 수 있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실시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물품지원,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공공요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는 공동마케팅·화재공제 지원을 추진하고, 해남매일시장과 해남읍 5일시장에는 시장매니저를 배치해 상인 지원과 현장 운영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끝송지장은 1월 중순 경 재개장하며, 화원 5일시장은 오는 4월 중순, 남리 5일시장은 2028년까지 정비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창 5일시장은 2026년 상반기 아케이드 추가 설치 및 화장실을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해남=박필용 기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돕는다”

함평 손불면 지사協, 취약계층 나눔

함평군은 “최근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5세대에 이불 세트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손불면 지사협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로, 주거환경 개선과 식료품 지원 등 지역 복지 현안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써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겨울 강한 한파와 잦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난방과 건강 관리에 취약한 이웃들의 부담을 덜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이불 세트 지원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등 경제적·주거적 여건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이불 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한편,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했다. <사진>

임수영 손불면장은 “이번 지원이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기영규 기자

완도군-도교육청 ‘교육·지역산업’ 상생 맞손

교육협력지구·해조류박람회 협력

완도군이 전남도교육청과 손잡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국제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및 2026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완도군은 오는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간 교육자치협력지구로 지정·

운영된다.

양 기관은 매년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민관·산학 등 안정적인 협력 체계 구축 ▲완도의 생태·문화·역사를 활용한 특화 교육 ▲진로 교육 지원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또한 두 기관은 오는 5월2~7일까지 열리는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



이 박람회장을 찾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완도군은 프로그램 안내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교육과 지

역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지역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군, 도선국사 이야기

‘숲을 이루만지는 손’ 발간



영암군은 5일 “지난 3일 지역 출신 고승인 도선국사의 생애와 생생의 철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그림책 ‘숲을 이루만지는 손(사진)’을 펴냈다”고 밝혔다.

해당 책은 지역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확산하는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출간사업의 일곱 번째 결실로 ‘세종대왕을 찾아라’의 김진 작가가 글을 쓰고, ‘해치’로 유명한 오치근 작가가 그림을 그려 완성도를 높였다.

이야기는 주인공 ‘별이’가 도선국사 할아버지를 만나 아픈 숲과 동물을 이루만지며 공존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영암 구림마을의 ‘장수발자국’ 전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친근하게 전달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도선국사의 생생 철학을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방문에서 체류로”...강진군 생활인구 충전 본격화

체류형 관광 콘텐츠 실증사업 선정

5억 투입 관광스타트업 유치·육성

강진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BETTER로(베터로)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 협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강진군과 전북 김제시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배터리(BETTER로)사업은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스타트업을 유치·육성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관광을 ‘방문’중심에서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관광객 증가가 아니라 체류·소비·창업·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민간 주도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체류객이 머무는 로컬살이 실험실 in 강진’을 주제로, 병영면(생활)과 성전면(기술)을 연계한 이원 구조의 실증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면은

전라병영성, 시장, 양조장 등이 결합된 경제 결합형 로컬 생활권으로, 관광 스타트업이 머물며 체류·소비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성전면은 옛 성하대 부지를 활용한 청년 글로벌 플랫폼을 거점으로, 기술·창업·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집적해 관광을 넘어 ‘일하고 창업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이 흐름이 다시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강진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반값여정 정책, 도시재생사업, 청년 글로벌 플랫폼, 빈집 활용 마을호텔, 푸소(FU-SO) 체류 프로그램 등

과 배터리 사업을 연계해, 실증 결과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군정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 관광객 중심의 단기 방문을 넘어, 반복 방문과 체류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민간 스타트업이 실제로 지역에 들어와 ‘살아보고, 일해보고, 창업해보는 과정’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배터리 사업을 통해 강진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찾아와 머무는 목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